

비슬산 참꽃문화제 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인환* · 김혜영* · 조광진** · 성지영*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I. 서론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비슬산 참꽃문화제(구. 비슬산 참꽃제)는 연간 26만 여명이 찾는 '진달래 명소'로서 대구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연과 단절되어 가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생태관광의 한 형태로 녹색갈증(biophilia)을 해소시켜 주고,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생태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조광진, 2012).

그러나 방문객의 증가와 그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행위는 산림생태계의 물리적·생물학적 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또한 지속적인 과잉이용행태는 생태계의 자연적인 회복마저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용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세천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개최된 제14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슬산 및 진달래군락지 주변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축제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분석함으로써 축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식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한반도 동남부 영남내륙의 중심에 입지한 비슬산은 행정구역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옥포면·가창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걸쳐 솟아 있으며, 최고봉인 대견봉(1,083m)을 중심으로 양쪽에 조화봉(1,058m)과 관기봉(990m)이 자리잡고 있다.

사전답사를 통해 진달래군락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통행빈도가 높은 등산로를 그 특성과 방문객의 이용목적에 따라 2개 등산로(A·B)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4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중에서 무응답 및 무성의한 답변 16부를 제외하고, A등산로는 193부, B등산로는 138부의 유효한 데이터(총 331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331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56.5%, 여성은 43.5%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등산로 모두 남성의 비율이 각각 59.1%, 52.9%로 여성의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대는 50대가 전체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32.3%로 집계되어 40~50대 중장년층이 약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로별로는 A등산로는 50대가 4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8.0% 순으로 나타났다. B등산로는 40대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50대가 34.1%로 집계되었다.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자영업(21.8%), 전문직(21.1%), 전업주부(16.9%) 순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대가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 원대(18.9%), 200만 원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거주지는 시외 거주자(67.1%)가 시내 거주자(32.9%)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방문객의 이용행태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대한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 처음 방문하였다는 사람이 전체 62.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회(17.8%), 3회(9.7%), 5회 이상(7.9%), 4회(2.4%) 순으로 집계되었다. 축제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TV·라디오·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21.1%), 인터넷(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 목적으로는 '참꽃군락지 감상'이 48.4%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18.4%, 신체건강 증진 14.5%, 휴식 13.0%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동반형태는 산악회와 같은 동호회가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친구(23.3%), 가족(22.9%), 회사동료(14.5%), 혼자(1.5%) 순으로 나타났다. 참꽃문화제장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을 분석한 결과, 자가용을 이용한 방문객이 55.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관광버스가 34.4%로 높게 나타났다. 참꽃

군락지까지 오기 위해 이용한 입구와 다시 하산하기 위한 출구를 조사한 결과, 자연휴양림(52.9%)과 유가사 및 수도암(43.2%)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다시 자연휴양림(60.1%)과 유가사 및 수도암(35.7%)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상등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인 6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3. 개선 및 보완점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대한 개선점으로 참꽃군락지의 생육상태 개선(29.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꾸준한 홍보활동(16.4%)과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15.1%)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참꽃군락지의 생육상태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은 당시 군락지의 진달래 생육이 불량하여 개화율이 60~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축제일과 개화시기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대의 관광형태는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슬산 참꽃문화제에서 행해지는 공연위주의 관람형 프로그램은 탐방객들로 하여금 식상함이나 지루함을 줄 수 있어 탐방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비슬산 참꽃문화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11개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11개 항목의 공통성(communality)을 찾고 각 요인별 영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제 1요인의 경우, 휴식 공간 제공, 등산로 정비, 화장실 청결도, 주차 편의 등의 변수가

주성분으로 포함되었으며, 24.055%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요인을 분석해 주는 분산의 양인 고유값은 2.649로 나타났다. 제 1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관련이 있어 '편의시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재방문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편의시설 요인(0.27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홍보안내 요인(0.201)', '축제내용 요인(0.194)'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방문객들이 직접이용하게 되는 편의시설의 여건과 쾌적성이 사후에 재방문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축제내용 및 일정에 대한 사전홍보, 축제현장에서의 안내 체계,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축제 내용이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달래를 주제로 하는 축제인 만큼 쇠퇴해가는 진달래의 생육상태를 개선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화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개화기간 중에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도입 등 축제내용을 보다 교육적이고 유익하게 보강하는 것도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아울러 등산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재정비 및 확충하고,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홍보형태에서 벗어나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안내로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후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세천, 박봉주, 유창현(2007)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의 등산로 훼손 실태 및 이용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1(4): 17-22.
2. 조광진(2012) 비슬산 진달래군락지의 식생복원을 위한 생태적 관리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